

2024년 제15회

허암예술제

우수작품집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INCHEON SEOGU CULTURAL CENTER



함께 누리는 감동, 문화로 공감하는 서구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원장 정군섭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2024년 제15회 허암예술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지난 8월부터 20일간 전국대회로 추진되었던 백일장은 허암 정희량의 삶을 생각해볼 수 있는 ‘유랑’, 계절과 잘 맞아 다양한 추억을 들여다볼 수 있었던 ‘여름밤’과 더불어 ‘반성’, ‘지구’ 네 가지의 시제로 공모하여 많은 작품이 접수되었고,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장원을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작품을 원고지에 자필로 작성하여 우편 제출로 접수 방법을 바꿨습니다. 다양한 필체로 쓰인 작품을 읽는 재미도 있었지만, 글자 하나하나에 녹아든 진심이 주는 감동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가 모여 만들어진 우수작품 모음집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새로운 시각을 나누는 기회를 가져다주었습니다.

문화, 문학의 힘은 한 인격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문화는 시대마다 그 시대를 채색하며,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에게 운명을 좌우할 만큼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의 핵심에 가까운 문학

의 힘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으며, 그 힘의 강력함이 가깝게 다가왔음을 요즘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허암예술제’ 또한 여러분이 보여주는 문학에 대한 애정 덕분에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잊지 않고 매년 참가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작품집에 실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끝으로, 매년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시는 해주정씨 대종친회, 서인천농협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허암예술제’는 더 발전한 모습으로 내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장 **정 군 섭**

:축사



안녕하십니까, 서구청장 강범석입니다.

제15회 허암예술제 우수작품집 발간을 더없이 기쁘게 생각하며 수상자를 비롯한 모든 참가자에게 진심 어린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안에 쏟아낸 창작물이지만, 그 안에는 각자의 삶과 고민, 열정이 고스란히 녹아있어 저마다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문학은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생각을 확장시키며,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줍니다. 이번 출품작만 봐도 알 수 있듯 같은 시제로 다른 배경,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며 우리를 또 다른 세계로 안내해줍니다.

올해는 대한민국에서 최초 노벨 문학상이 탄생한 만큼 문학의 힘이 더욱 커지리라 생각합니다. 허암예술제 백일장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불씨가 되어, 앞으로의 창작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기를 소망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좋은 작품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의장 송승환입니다.

허암 정희량 선생의 선비정신과 문학을 사랑하는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함께한 제15회 허암예술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열린 미술대회에 참가해 소중한 작품을 출품해 준 우리 서구 어린이들에게도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에도 전국에서 답지한 우수한 작품들이 허암예술제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 주었습니다.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예술제로 자리 잡아가는 여정이 참으로 뜻깊게 느껴집니다.

허암 선생은 폭군으로 악명높은 연산군 시절에도 임금이 행하여야 할 10가지 덕에 대한 상소를 올릴 정도로 기개와 선비정신이 높으셨습니다. 사회가 혼란할 때마다 되돌아보게 되는 허암 선생님의 올곧은 길이 우리 서구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남아있어 든든하고 자랑스롭습니다.

이번 우수작품집 발간으로 시와 수필에 담긴 우리네 일상과 허암 선생의 선비정신이 모든 분에게 심심한 위로와 용기를 전해줄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번 따뜻한 마음과 섬세한 감성이 돋보이는 시와 수필을 투고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뛰어난 작품성으로 깊은 감동을 안겨준 수상자 여러분께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끝으로, 서구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발굴하여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명품 도시를 만들어가는 서구문화원 정군섭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송 승 환**

:축사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 국회의원 김교홍입니다.

허암예술제 백일장, 미술대회 개최부터 우수작품집 발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정군섭 서구문화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암예술제에서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선보여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수상자 한 분 한 분께 진심을 담아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문화유산은 그 자체로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유산을 어떻게 계승하고 활용할지 고민하는 것 역시 중요한 문제이며 동시에 후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향유하며, 오래도록 기억하는 것 이야말로 역사를 잊지 않고 문화유산의 가치를 되새기는 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허암예술제는 서구에 남겨진 문화유산을 예술제로 승화한 문화유산 활용의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허암

정희량 유희지에서 청소년들과 주민 여러분들이 모여 백일장과 미술대회를 여는 모습은 그 어느 예술제보다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 서구에는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를 포함하여 약 23건의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녹청자 도요지, 신현동 회화나무 같은 유형 문화유산부터 서곶들노래, 휘모리 잡가 등 무형 문화유산이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본래의 의미를 되찾고 온전히 계승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구의 남겨진 문화유산을 허암예술제와 같은 문화콘텐츠로 발전시켜 많은 주민과 함께 보존하고,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과 제도를 마련해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15회 허암예술제 우수작품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인천 서구갑 국회의원 **김 교 홍**

:축사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국회의원 이용우입니다.

먼저, 제15회 허암예술제 우수작품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58호인 '허암 정희량 유허지'는 우리 서구가 자랑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고귀한 선비정신을 이어받아 새로운 문화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우수작품집에 수록된 작품들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문인이자 선비였던 허암 정희량 선생의 정신이 깃든 귀중한 문화자산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허암예술제가 우리 서구를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더욱 발전하여, 전통문화의 가치를 이어가는 동시에 새로운 문화예술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국회의원으로 우리 지역의 역사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문화예술을 진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15회 허암예술제 우수작품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천 서구(을) 국회의원 **이 용 우**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 검단의 국회의원 모경종입니다.

〈2024년 제15회 허암예술제〉 개최와 우수작품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구의 품격 높은 문화예술로 구민이 행복한 서구를 만드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군섭 서구문화원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조선시대 대표 문인인 허암 정희량 선생의 선비정신을 이어받아 벌써 15회째를 맞은 허암예술제는 서구뿐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문예창작과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를 주는 뜻깊은 축제입니다.

500점에 가까운 작품들의 경쟁을 뚫은 18분의 수상자와 10명의 어린이 미술대회 수상자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내년에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참가해 한층 열띤 경쟁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허암예술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해 서구를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며, 다양하고 풍성한 지역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서구가 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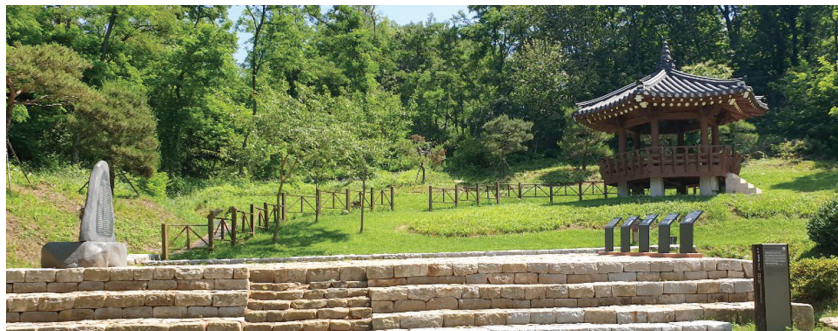
인천 서구병 국회의원 **모 경 종**

허암 정희량 虛庵 鄭希良

정희량은(1469~1502)은 서울 출생으로, 본관은 해주, 자는 순부(淳夫), 호는 허암(虛庵)이다. 조선 중기 사림 학파를 이끈 김종직(金宗直)의 문인으로, 1491년(성종 22) 생원시에 장원으로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갔다. 성종 승하 후 궁중에서 불교의 재(齋)를 올리자 이를 금하는 상소를 올려 해수에 유배되었다. 1495년(연산군 1) 별시문과에 급제, 이듬해 사관인 예문관 검열이 되고, 외교문서의 교정 및 수정을 담당하던 승문원의 권지부정자에 임용되었다. 1497년 예문관 대교로 연산군에게 임금의 행해야 할 10개조의 상소를 올렸고, 다음 해 선무랑 예문관 봉교로서 『성조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1498년 사초문제로 무오사화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탄핵을 받아 장(杖) 100대, 유(流) 3,000리의 처벌을 받고 의주에 유배되었다가, 1500년 5월 김해로 옮겨졌다. 다음 해 풀려난 후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고향에서 시묘하다가, 앞으로 닥쳐올 갑자사화를 예견하고 조강(祖江)에 신발과 의복을 남겨둔 채 사라져 허암산에 수년 간 은거하였다. 이때 정희량의 아우이자, 경상좌도수군우후를 지낸 정희신(鄭希信)이 형을 돌보기 위해 지금의 검암동에 입거하였고 지금도 그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 정희량은 후일 묘향산 등을 유랑하다 평북 정주에 입거하였다고 전해진다.

정희량은 문학에 조예가 있었고, 음양학(陰陽學)에도 밝았는데, 실록에는 “그(정희량)가 복서(卜書)보기를 좋아하며 매양 일이 있게 되면 반드시 길(吉)한가 흉(凶)한가를 먼저 점쳤었다.”고 기록 하였다.



허암 정희량 유허지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5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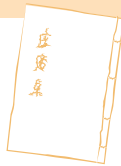
『허암집』

『허암집』은 허암 정희량의 학문과 일생을 기록한 문집으로 조선시대에 3번, 일제 강점기에 1번, 모두 4번에 걸쳐 간행되었다.

『허암집』이 처음 간행된 것은 1511년(중종 6)으로 그와 학문적 교유가 있었던 청해군(靑海君) 이우(李偶)와 김사형(金士衡)에 의해서였다. 그들은 허암이 유배생활을 했던 의주와 김해에서 지은 시들을 3권 1책의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그 후 정희량의 후손인 경상도 관찰사 정조(鄭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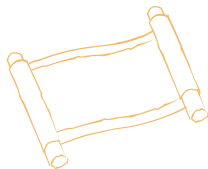
1621년 두 번째 간행하였고, 1897년 정희량의 11세손인 정광숙(鄭光淑) 등이 세 번째 간행을 하였다. 그리고 평안도 정주(定州)의 허암 후손들은 허암을 기리기 위해 1930년 허암사(虛庵祠)라는 사당을 세우고, 1940년 14세손 정종하(鄭宗夏)·정종은(鄭宗殷) 형제가 지방 유림의 도움을 받아 기록을 증보하여 네 번째 『허암집』을 연활자(鉛活字)로 간행하였다.

『허암집』에는 허암이 지은 시와 허암의 학통·가계·행적 등이 실려 있으며 특히 1940년에 간행된 『허암집』에는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은 허암의 평안도 정주 입거 후 부터 생을 마치기까지의 기록이 실려있다.



『허암집』

임금의 덕에 대한 상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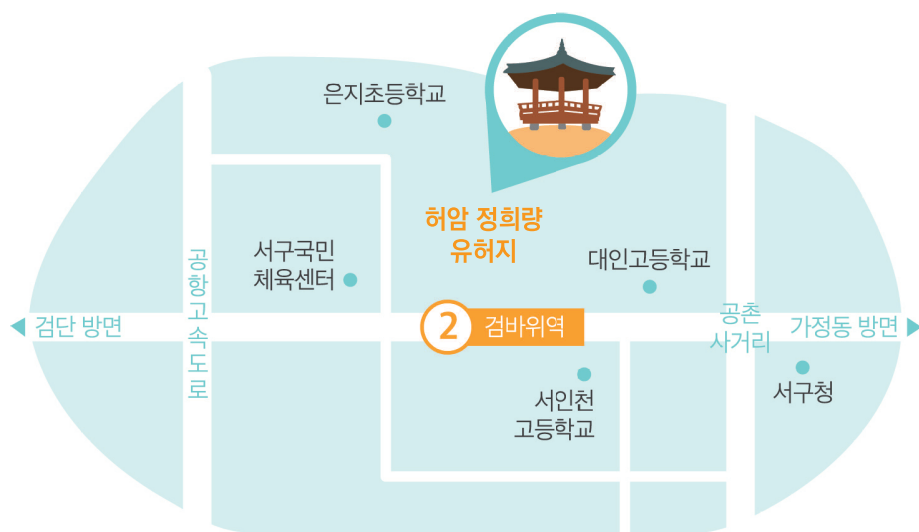
허암 정희량은 선비이자 관리로서 성품이 매우 올곧았다. 1495년(연산군 1), 그는 궁중에서 올리는 불교 의식이 그릇됨을 지적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유배를 다녀오게 된다. 1497년, 예문관 검열이었던 정희량은 폭군으로 평가 받는 연산군에게 임금이 행하여야 할 10가지 덕에 대한 상소를 올렸다. 이처럼 그는 남다른 기개가 있는 선비였다. 허암의 상소는 『연산군일기』에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 정군심(正君心) 임금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
- 납간쟁(納諫諍) 간쟁을 받아들이는 것
- 경대신(敬大臣) 대신을 공경하는 것
- 숭학교(崇學校) 학교를 숭상하는 것
- 신상벌(愼賞罰) 상벌을 삼가는 것
- 근경연(勤經筵) 경연을 부지런히 하는 것
- 관현사(辨賢邪) 어짐과 사악함을 구별하는 것
- 억환시(抑宦寺) 내시를 억제하는 것
- 벽이단(闕異端) 이단을 물리치는 것
- 절재용(節財用) 재물을 절약하는 것

『연산군일기』 25권, 연산 3년 7월 11일 경술 4번째 기사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58호

허암 정희량 유허지 찾아오는 길



지하철

인천지하철 2호선
검바위역 하차 1번출구



버스

1번, 13번, 90번, 93번
700-1번, 310번, 800번
검암사거리 정류장 하차



자가용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산 60-5

백일장 심사평	18
---------------	----

백일장 수상작

장원 / 일반부 / 산문 / 경기도 동두천시 / 최옥숙	26
차상 / 학생부 / 운문 / 안양예술고등학교 3학년 8반 / 최지우	29
차중 / 학생부 / 운문 / 대광여자고등학교 3학년 1반 / 김혜령	31
차중 / 일반부 / 산문 / 대구시 동구 / 한혜지	32
차하 / 일반부 / 운문 / 경기도 고양시 / 이해숙	35
차하 / 학생부 / 산문 / 구성고등학교 3학년 5반 / 최은아	36
참방 / 학생부 / 운문 / 서울용동초등학교 6학년 3반 / 이찬희	39
참방 / 일반부 / 산문 / 서울시 중랑구 / 한남희	40
장려 / 일반부 / 운문 / 경상북도 경산시 / 강영빈	43
장려 / 일반부 / 산문 / 강원도 춘천시 / 김지윤	45
장려 / 일반부 / 운문 / 인천시 서구 / 김효정	48
장려 / 일반부 / 산문 / 대구시 북구 / 성백광	49
장려 / 학생부 / 운문 / 화산중학교 2학년 1반 / 소현수	52
장려 / 일반부 / 산문 / 강원도 홍천군 / 안혜민	53
장려 / 학생부 / 운문 / 삼현여자고등학교 2학년 4반 / 이현서	57
장려 / 학생부 / 산문 / 충청남도 부여군 / 천보경	58
장려 / 학생부 / 운문 / 한들중학교 3학년 2반 / 추민재	61
장려 / 학생부 / 산문 /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3학년 5반 / 황지호	62

CONTENTS

미술대회 심사평	66
----------------	----

미술대회 수상작

대상 / 7세 / The큰빛유치원 / 이다은	68
최우수상 / 7세 / 청라새싹유치원 / 김준서	69
최우수상 / 7세 / 청라새싹유치원 / 조유라	70
우수상 / 6세 / 인천당하초등학교병설유치원 / 김나연	71
우수상 / 6세 / 작전어린이집 / 김도준	72
우수상 / 6세 / 가현센트럴어린이집 / 임수아	73
장려상 / 6세 / 청라새싹유치원 / 문유건	74
장려상 / 6세 / 예일유치원 / 이류경	75
장려상 / 7세 / 인천청라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이민채	76
장려상 / 7세 / 예일유치원 / 한그루	77



심사평 및 수상작
<백일장>





김 영 범 심사위원

(한국문인협회 소속)

제15회 <허암예술제 백일장> 공모전에 응모한 모든 분께 격려와 찬사를 보낸다. 놀라운 것은, 지역 축제 백일장에 투고자가 초등학생을 비롯하여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연령대와 관계없이 전국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번 백일장의 과제는 ‘유랑, 여름밤, 반성, 지구’였다. 응모 분야는 시와 수필이었고, 심사는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누어 진행했다. 그중 일반부의 수필 부문 심사에 대해 심사 경위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예심을 거쳐 본심에 오른 작품들을 두 번, 세 번 읽으며 면밀히 살폈다. ‘내가 쓴 글보다 재미있는 글은 없다.’라는 말처럼, 응모자의 처지에서 그 마음을 헤아리고자 했다. 그리고 독자이자 심사자로서 엄정한 문학적 잣대를 들어 응모작을 가리는 데 집중했다.

응모작 대부분이 안정적인 문장을 구사했고, 자기 체험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여 수준 높은 작품들을 선보였다.

한편, 작품을 보며 아쉬움이 들었다. ‘수필은 무형식의 글’이라는 말을 오해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 여기서 무형식이라는 말은 ‘형식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형식에 구애받지 말라’는 뜻이다. 시에서는 운율이나 표현 기법 등이, 소설에서는 플롯이나 서술 방식 등이 장르적 특성을 규정하고 있다. 수필은 그러한 형식적 제약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필이 시나 소설보다 쓰기 쉽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부연하자면, 수필은 자기 고백적이고 개성이 넘치는 글이다. 인생



을 통찰하고 지성이 번득이기도 한다. 자기 삶에 대한 성찰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이러한 체험과 깨달음을 문예 미학적으로 승화시키는 한없이 열린 문학 장르이다.

응모작 중에는 신변잡기를 나열하는 데 그친 작품들이 많았다. 그런가 하면 지나치게 과거를 돌아보며 회고하는 글들도 많았다. 이런 글들은 수필 문학의 격을 떨어뜨린다. 흘러간 세월과 시류에 집착하면 ‘라테(나 때)’류의 글이 되고 만다. 처지를 한탄하며 감성을 자극하는 글 또한 읽기에 불편하다. 수필을 지적 유희로 생각하고 백과사전식으로 자기 생각을 늘어놓은 글들도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다. 다시 말해 독자로부터 외면받기에 십상이다. 자신이 겪은 경험을 기록으로 옮기는데 머물지 말고, 문학적 감성과 상상력을 동원하여 독자에게 다가서야 수필로서의 품격이 살아난다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김 정 임 심사위원

(한국문인협회 소속)

이 척박한 시대에 문학은 무엇일까. 원가에 쫓기듯 바쁜 시간을 살면서 꿈을 차곡 차곡 실현해나가는 현대인들 사이에서 자신의 속도로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닐까

제15회 허암예술제 백일장 공모전에 참가한 초등부 경우, 작품 속에 표현된 해맑은 동심이 특히 재미있었으며 주제에 맞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드러낸 점이 또한 매우 기특했다. 기교를 부리지 않은 글이 얼마나 신선한지 깊은 강에서 표면으로 튀어오르는 물고기의 아름다운 은빛 비늘을 눈 앞에서 바라보는 듯 경이로웠다.

중·고등부에서는, 감각적 표현으로 주제를 부각시키려는 노력들이 특별히 더 돋보였으며 몇몇 작품은 성숙한 사고와 사유의 깊이를 이미 갖고 있어서 기성 작가의 작품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작품의 수준이 빼어났다.

성인부는, 독특한 상상력과 은유성, 그리고 치밀한 구성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고 분명한 주제의식으로 무너지지 않는 돌탑을 쌓듯 시적 문장이 탄탄한, 내공 깊은 작품들을 만날 수 있었다.

수상권에 든 작품들은 저마다 탁월한 상상력으로 개성적 착상과 솜씨 있는 표현을 보여주고 있다. 대체로 문장이 세련되고 안정적이며 함축의 미와 자신만의 섬세



한 감정을 작품 속에 잘 녹여내고 있으며 시적 감각으로 사물 속에 감춰진 본질을 잘 발견해내고 있었다.

모든 수상자에게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이 나라 문학을 이끌어가는 훌륭한 문인으로 성장하기를 빈다. 원고지에 정성 가득 손 글씨로 쓴 작품을 제출한 모든 응모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박 정 희 심사위원

(한국문인협회 소속)

제15회 허암예술제 백일장 응모작품 중 모두 수준이 높았다.

필자는 백일장 심사를 여러 곳 해봤지만, 원고지에 참여한 글은 모처럼이라 글씨 체도 멋지고, 참신했다. 어떤 글씨체는 놀라울 정도로 잘 써서 박혀 놓았나 다시 읽어 보기도 했다. 응모작품 몇 작품은 너무 참신했고 글솜씨가 좋아서 장원 뽑기가 어려웠다.

장원 최옥숙「여름밤 반딧불이」수필은 정말 가슴이 뭉클했다. 손주를 잃은 슬픔을 반딧불이랑 이야기하면서 울먹이던 할머니의 마음이 잘 표현되었다.

차상 최지우「여름의 말」이란 시는 여름 비유를 아주 표현을 잘했다. 잘 달군 하늘 위로 여름밤을 톡톡 깨트려 달을 손가락으로 둥글게 파먹다 보면 표현했다. 올여름 유난히 더웠던 지구의 표현이다.

차중 김혜령「유량」시와 한혜지「하차」수필도 남다른 표현과 소재를 잘 이어 나갔다. 차하, 참방, 장려, 상 모두 실력이 너무나 대단 했다. 허암예술제 백일장 작품 모두 참으로 수준이 높았다. 수상하신 참가자 모두에게 축하드립니다.

박 희 주 심사위원

(한국문인협회 소속)

컴퓨터로 원고를 작성하는 시대라 그런지 원고지 사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응모자를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컴퓨터에 의해 원고를 작성한다 해도 그 기준은 어디까지나 원고지 작성법을 그대로 따라 한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거나 간과한 것 같습니다.

응모작 대부분이 시대의 흐름 때문인지 문장력이 약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학교 교육 경쟁 체제에서 문학을 소홀히 여기지 않은 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문학은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한 지속 가능한 영역인데 그 중요성이 희미해지고, 또한 책을 읽지 않은 영향 탓도 있을 겁니다.

심사위원의 눈길을 끈 작품은 체험을 진솔하게 형상화한 작품이었습니다.

「여름, 밤, 바다」 같은 작품이 그렇습니다. 읽어내며 애뜻한 심사를 가눌 길이 없었지요.

「아름다운 지구를 지키는 나」는 도입 부분에서 심사위원을 뺄 터지게 하는 효과를 자아냈으나 합평 시 많이 인용된 에피소드였음이 드러났고, 일반적인 지식의 나열이 오히려 설득력을 반감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제에 대한 ‘나’만의 고민이 적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에 확 띄는 작품이 보이지 않았고 색깔이 분명치 않았습니니다.

입상자에게 박수를 보내며 응모한 모든 이의 건투를 빕니다. 문학은 죽지 않고 우리가 영원히 추구할 장르입니다.



이 월 성 심사위원

(한국문인협회 소속)

제15회 허암 예술제 백일장 공모전에는 삶에서 건져 올린 다양한 이야기들을 가슴으로 풀어낸 작품들이 많았다. 글제는 <여름밤>, <우주>, <반성>, <유랑>이었다. 이중 <유랑>은 올곧은 선비적 삶을 살았기에 여러 곳을 떠돌 수밖에 없었던 정희량 선생의 정신을 기려 선택된 시제였다.

이번 응모작들을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고민과 갈등을 겪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작품을 읽으면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글쓰기가 어떤 방법을 찾아내는지, 그 과정을 함께 따라가는 감동적인 시간이었다. 이것은 생동감 넘치는 묘사와 진솔한 마음을 과감하게 보여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산문은 글제에 따라 각 개인의 상황은 다르지만, 작품의 주제와 이야기가 비슷하였다. 좀 더 낮설고 발칙한 발상의 작품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여름밤>은 화자가 어린 시절로 돌아가 한 여름밤을 추억하는 작품이 많았다. 힘들고 곤궁한 생활이었지만 따뜻하고 정감 어린 체험이 지금에서야 보물과도 같았다는 것을 깨닫는 글들이었다.

<우주>는 광활한 우주의 신비로움 속에서 인간이 소우주임을 발견하고 환경을 지키는 것이 우주를 지키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자신을 이롭게 하는 길임을 발견하는 작품이 많았다.



<반성>은 일상 속에서 가족과 이웃의 관계를 들여다보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글이 많았다.

<유랑> 역시 자신의 목표지점을 찾지 못해 떠도는 자신의 모습을 냉철하고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그린 작품들이 많았다.

백일장이 필요한 이유가 이런 작품들을 토해 놓을 장을 만들어 준다는데 큰 의미가 있고 이 마당이 있어 다행이며 감사할 따름이다. 글을 썼다는 자체만으로도 큰 성과를 얻었다고 본다. 바쁜 일상에서 스스로를 들여다볼 기회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 백일장에 작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으리라 생각한다. 그것은 글을 써본 사람들만이 아는 기쁨이기 때문이다. 우수한 작품이 많았으나 수상자 숫자가 정해져 있어 수상의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한 응모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여름밤 반딧불이

경기도 동두천시 | 최옥숙

풀 사이를 헤집고 나타난 그윽한 빛무리가 캄캄한 여름밤 하늘을 환히 밝힌다. 반딧불이다.

스스로 빛을 내 별처럼 반짝이는 반딧불이가 자석처럼 마음을 끌어당긴다. 마치 누구나 가슴속에 하나씩은 품고 있을 법한 희망의 불빛 같다. 몽글몽글 솜사탕 같던 손녀딸아이의 미소를 다시 한 번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그리움을 담아 가만히 손을 뻗어본다.

사랑하는 손녀가 예상치 못한 사고로 먼 길을 떠났다. 보름 남짓한 짧은 생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빛을 뿜어내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반딧불이처럼 주변을 환히 밝히던 손녀는 고작 십년 남짓한 짧은 생을 살고 허망하게 빛을 잃어버렸다.

슬픔과 그리움을 삭이려 안간힘을 써보았지만 온 세상이 캄캄해 움짱달 짝할 수조차 없었다.

몇 번의 계절이 바뀌고 다시 여름이 돌아오자, 불현듯 지난여름 반딧불이를 궁금해 하는 손녀를 데리고 반딧불이축제가 열리는 무주로 갔던 일이 떠올랐다.

반딧불이를 보러 간 날은 밤하늘이 더없이 맑았다. 해거름 즈음 도착해

호젓한 숲길을 거닐고 있으니, 저만치서 아련한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손녀의 손을 잡고 보물찾기를 하듯 불빛을 따라가자, 낭창낭창한 풀잎 끝에 숨어있던 반딧불이들이 일제히 날아오르며 여름밤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았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현란한 빛의 세상이라면 반딧불이가 사는 세상은 은은한 빛의 세상 같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반딧불이는 어둠 속에서 더 치열하게 빛을 내며 비상했다.

“할머니, 마치 하늘에 은하수를 뿌려놓은 것 같아요!”

손녀는 자연이 빚고 여름밤이 품은 경이로운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투명하게 빛나는 반딧불이를 열심히 눈과 마음에 새기고 있는 손녀가 너무 사랑스러워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아프리카에선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반딧불이가 되어 사랑하는 사람 앞에 나타난다고 믿는데. 할머니도 그 말을 믿어.”

내 말에 손녀는 눈을 반짝이며 “그러면 저 반딧불이는 할머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라고 물었다. 나는 손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그래, 깜빡 깜빡 빛을 내면서 할머니한테 보고 싶었다고 알려주는 거야.”라고 말했다.

그날 밤, 반딧불이는 우리가 쉬이 잠들도록 놓아주지 않았다. 숙소로 돌아온 후로도 나란히 누워 밤새도록 도란도란 반딧불이 얘기를 나누었다.

이곳에 함께 왔던 그때로, 반딧불이를 보며 손녀가 종알거리던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눈앞의 반딧불이를 보자 꺾꺾 눌러두었던 그리움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손녀가 떠나고 남은 빈자리

엔 진득한 상실감만이 남아 슬픔을 부채질했다.

잠시 생각에 잠겨 있는 사이 일단의 빛무리가 하늘 위로 날아올라 여름밤을 아련히 수놓았다. 그중 주변을 맴돌던 반딧불이 한 마리가 내 손등 위에 가만히 내려와 앉았다. 꿈결인가 싶어 잠시 눈을 감고 있으니, 냉기 가득한 품 안에서 손녀의 따스한 온기가 느껴졌다. 지난날 내가 말한 것처럼 손녀가 그리움을 안고 반딧불이가 되어 내 곁을 찾아온 걸까.

반딧불이를 두 손에 고이 들고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

“아가야, 나도 네가 많이 보고 싶구나! 내가 좋아했던 반딧불이를 따라 자유롭게 날아가려무나. 그리고 내년 여름밤에 우리 여기서 또 만나자꾸나!”

내 말에 화답하듯 반딧불이는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아갔다.

후덥지근한 한낮의 훈기가 가라앉고 여름밤의 청량한 바람이 불어온다. 계절이 비켜선 나의 황량한 마음속으로도 어느덧 여름밤이 들어와 앉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반딧불이는 시리도록 푸르러가고, 어둡고 캄캄하던 내 가슴은 별빛이 하나 켜진 듯 그윽했다.

반딧불이의 불빛이 마치 떠나간 손녀가 내게 보내는 편지 같아 한참을 눈을 떼지 못했다. 밤새도록 반딧불이 얘기를 하며 환하게 웃던 손녀의 미소가 아른거려 이 여름밤도 잠들지 못하고 뜬눈으로 지새울 것 같다.



여름의 말

안양예술고등학교 3학년 8반 | 최지우


목소리는 나이테를 따라 둥글게 둥글게 펼쳐

가지 사이로 별들이 날아들어 꽃들의 기억을 어지럽게 털어놔요. 잎사귀를 쫓듯 세우고 바람이 속삭이는 방향으로 귀를 기울이면 이제 막 돌아난 잎맥들이 간질거려요. 잘 달군 하늘 위로 여름밤을 툭툭 깨트려 먹는 맛, 달을 손가락으로 둥글게 파먹다 보면

연못들이 녹아 흐르고 음표들이 녹음 사이로 둥둥 떠다녀요. 틈틈이 들을 듯 나이테를 따라 돌면서 계절이 연주하는 소리 겨우내 쓰러졌던 풀들이 영혼 위로 슬그머니 돌아나요. 모든 꿈의 종착지처럼 숲은 어둠으로 부풀어 올라요.

참아온 것들 중, 가장 참기 어려운 목소리로 땅은 수천 년에 걸친 이야기를 꺼내 놓아요.

나는 뿌리를 활짝 열고 땅의 습하고 내밀한 목소리를 받아 마셔요.



환희와 슬픔으로 나이테는 점점 더 단단해져 가요. 숲은 기억해야 할 수
많은 일을 태엽처럼 감아왔지만, 앞으로는 기억을 허무는 일에 마음을 다
하겠지요.

내게서 흐르던 앞맥이 터져 나와
여름밤의 숲은 아름다움으로 범벅이 돼요.



유랑

대광여자고등학교 3학년 1반 | 김혜령

붉은 실이 운명을 이어준다는 이야기
동화책 모서리는 웃음만 지었지
작은 실뭉치는 풀리고 풀려
어머니의 일거리로 쓰였어
조각난 두 옷을 하나로 만들면
새로운 우주는 중력 위로
뛰어오르고 나의 웃음은
은하수를 타고 견우성과 직녀성을 뛰놀았지
파쇄된 이면지를 가득 담은 토끼 인형은
곡선을 타고 메꿔지는 태아가 되고
태동은 바스락바스락 서서히 사라지지
반질고리 안에는 추억이 떠올라
유랑하는 우리의 작은 발바닥은
점점 깊숙한 자국을 남길 테지
다음에 봐
어머니의 인형은 낯선 손으로
익숙함을 배워가고 있다는걸
꿈에서 깬 나도 언젠가
이해하는 날이 올 거야



하차

대구광역시 동구 | 한혜지

10분 뒤 도착. 나는 버스 도착 예정 시간이 깜빡거리며 떠다니는 모니터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이곳을 떠나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었다. 밤이 되도 식지 않은 여름 열기에 땀이 흘렀다. 나는 어깨에 메고 있는 화구통과 몸체만 한 캐리어를 짊 움켜쥐었다. 나는 한 번도 전문적으로 미술을 배운 적은 없었다. 그러나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언젠가는 미대에 입학하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은 일단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지 생각하는 것이 먼저였다. 깊은 숨을 내뿔으며 빠르게 뛰는 심장을 어떻게든 진정시키려 했다. 옆을 힐끗 바라보았다. 원장님 또한 긴장한 듯 바싹 마른 입술 위로 연신 침을 발랐다. 코를 한 번 킁 들이마신 원장님은 내 이름을 불렀다. 그러고는 손에 가방 하나를 건넸다. 만두, 볶음밥, 라면... 각종 간편식이 들어있었다. 끼니 거르지 말고, 원장님은 나를 꼭 안았다.

처음 원장님을 만났을 때도 그녀는 나를 꼭 안아주었었다. 여섯 살 엄마의 손을 잡고 처음 간 보육원에서 원장님을 만났다. 엄마가 꼭 데리러 올게. 잘 지내, 라는 말을 남긴 채 그녀에게 내 손을 넘겼다. 나는 멀어지는 엄마를 보며 왜인지 다시는 보지 못할 것만 같은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엄마 쪽으로 손을 뻗었다. 그러나 아무리 엄마를 부르며 소리쳐도 닿

지 않았다. 원장님은 그런 나를 꼭 끌어안으며 등을 두드려 주었다. 나는 그때와 달리 나보다 작아진 원장님의 품에 기댔다.

버스가 도착하고 나는 캐리어와 화구통, 원장님이 준 가방까지 든 채 차에 올랐다. ‘삐빅- 학생입니다.’ 교통카드를 대자 알림 소리가 울렸다.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아 성인 요금으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였다. 버스는 이렇게 내가 아직 어리다고 말하는데 왜 나는 벌써 어른 취급을 받으며 세상 밖으로 떠밀려 나가는지 알 수 없었다. 이제 모든 것을 스스로 해내야 했다. 밥을 해 먹는 것도 생활비를 내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그리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도 말이다. 이 세상에 혼자 갑자기 툭 떨어진 기분이 있었다. 그러나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일주일 전 받은 자립 교육에서 배운 떡볶이 만드는 법뿐이었다. 보육원을 나가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자 원장님은 자립 교육을 하기 시작했다. 마트에서 장보기부터 요리하기, 통장 관리법까지 나는 한 번에 많은 것을 습득해야 했다. 그러나 여전히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것은 없었다. 가장 쉬운 장보기를 할 때마다도 나는 내가 맞는 것인지 원장님의 눈치를 살폈다. 교육을 받을수록 보육원을 떠나 혼자 살아갈 자신이 없어졌다.

버스 밖으로 손을 흔드는 원장님이 보였다. 버스는 앞으로 내가 살아야 할 원룸으로 향했다. 너무 좁아 새장 안에 갇혀버린 듯한 느낌이 드는 곳이었지만, 이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선택지는 지원금의 액수를 넘어가거나 고평이가 심해 살 수 없었다. 버스가 출발하고, 원장님은 점점 멀어져 개미처럼 아주 조그맣게 보였다. 더 이상 그녀의 형태가 보이지 않자, 머구름은 기다렸다는 듯 비를 쏟아냈다. 유리창 위로 빗방울들이

맺혔다. 가족 같았던 보육원을 떠나 결국 또다시 혼자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가슴 한편이 아려왔다.

하차를 해야 할 곳이 다가왔다. 그러나 비는 그칠 생각이 없어 보였다. 오히려 더욱 세차게 쏟아져 내렸다. 나는 이제 일어날 준비를 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저 비를 내가 뚫고 갈 수 있을까. 나에게 우산은 없었다. 이대로라면 모든 비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다. 정류장은 점점 가까워져 갔고,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졌다. 버스 문이 열리고 내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 또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었다. 화구통에 들어있는 그림이 떠올랐다. 마지막으로 보육원을 그린 그림이었다. 세차게 내리는 비에 화구통이 젖어 들어가고, 비가 안쪽까지 스며들며 그림을 적셔버릴 것만 같았다. 유일한 추억이 깃든 그림을 젖게 만들 수는 없었다. 그러면 정말 모든 것을 잃은 채 혼자가 되어 버릴 것만 같았다. 버스 안 가득한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 누구도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그래 비가 조금 잦아들면 내리자, 우산도 없잖아. 조금 천천히 돌아가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버스 안은 점점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갔다. 버스가 멈출 때마다 사람들은 기울어졌고, 그들의 살갗이 내 팔에 맞닿았다. 따뜻한 온기가 고스란히 전해졌다. 창밖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조금이라도 더 이 온기를 머금고 싶었다. 비가 그칠 때까지만이야... 비에 휩쓸려 갈 따뜻한 온기를 마지막으로 잡아보는 여름밤이었다.



유랑

경기도 고양시 | 이해숙

지난밤 달빛에
집도 없는 작은 새 한 마리
휘청이는 나뭇가지에서
실눈을 뜨고 졸고 있다

오늘 밤에도
작은 새 한 마리
나뭇가지에 돌아와 앉아
달빛을 덮은 채로 졸고 있다.

달그림자 지워지면
눈 비비고 날아가는
작은 새 한 마리

누구를 찾아가는 것일까
키 큰 나뭇가지 사이로
첫 새벽 햇살 비치면
밤새 담아 둔
잔 별을 뿌리고 날아간다



여름, 밤, 바다

구성고등학교 3학년 5반 | 최은아

하얀 입김은 까만 밤하늘과 대비되어 더욱 선명하게 보인다. 이제 곧 한여름이 다가오는데도, 바닷바람은 차갑기 그지없었다. 저 멀리서 트럭이 텅텅거리며 다가왔다. 운전석에서 내린 아저씨는 생선을 옮겨 담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말과 함께 멧쩍게 웃으며 활어가 담긴 상자들을 옮겼다. 아무래도 해녀 수가 줄었으니까... 아저씨는 아빠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지만 아빠는 묵묵히 상자를 옮기기만 했다. 그새 더 주름진 거 같은 아빠의 손을 보며 나는 아빠에게서 상자를 뺏어들었지만 아빠는 금세 다른 상자를 찾아들며 나를 앞질러갔다. 나도 상자를 고쳐들고는 서둘러 아빠를 따라갔다.

아빠가 꺼내든 생선은 감성돔이었다. 벗어나려 온 몸에 힘을 주고 펄떡이는데, 몸을 비트는 와중에도 눈동자는 내게 고정된 것만 같아 소름이 끼쳤다. 아빠는 아랑곳 않고 날카로운 칼로 단번에 생선의 머리와 몸통을 분리했다. 그 날카로운 금속성 소음에 나는 아빠를 쳐다보았다. 머리와 몸통을 분리하고, 비늘들을 쳐 내고, 지느러미와 내장을 제거한다. 생선의 지느러미 부분에 칼을 집어넣고 뼈와 살을 분리한다. 일련의 과정은 부자연스럽기 짝이 없었다. 분명 매끄럽게 이어지고 있는데도. 아빠가 칼로 생

선의 등을 툭툭 쳐 가며 비늘을 벗겨낼 때, 이상하게도 조그맣고 뭉툭한 은색 비늘이 내게는 마치 날카롭고 예리한 칼의 파편 같았다. 아빠의 억센 힘에 비늘이 이리저리 튀었다. 나는 비늘이 아빠의 손에 상처라도 낼까 덜컥 겁이 나 아빠의 손을 붙잡았다. 아빠는 그런 나의 손을 뿌리치진 않았지만, 하던 걸 멈추지도 않았다. 내 손을 짐처럼 짊어진 채로 계속해서 칼을 움직였다.

나에겐 시선 한 자락 주지 않는 아빠에 저절로 손의 힘이 풀렸다. 무심코 시선을 내려 아빠의 손을 바라보았다. 비늘이 벗겨지며 나는 소리보다, 아빠의 억누르는 듯한 씩근거리는 숨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몸을 뒤로 물리자, 이를 악물었는지 유독 도드라지는 턱도 보였다. 나는 침묵했다. 아빠의 코끝이 붉어진 게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한여름의 바다로 영영 떠나버린 엄마 때문인지를 알 수 없어 더욱 그랬는지도 모른다.

붉은 기가 도는 살이 접시에 차근차근 놓였다. 정갈하게 놓였지만, 엉성한, 모양의 살 때문에 뒤섞인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몇 번이고 생선을 꺼내어 손질하던 아빠는 모양이 나아지질 않자 결국 그나마 깔끔해 보이는 살들을 골라 정성스레 놓았다. 아빠는 접시를 뺀히 내려다보다 이내 주저앉아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회 깔끔하게 뜨는 건 느낌이 어미가 잘하는 건디... 나야 고냥 잡아서 주기만 했어야. 이런 걸 알 리가 있나... 떨리는 목 소리가 두 손 사이로 새어 나왔다. 시큰거리는 코끝에 나도 회를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이리저리 뜯긴 살들의 모양을 보고 있기가 어려웠다. 내가 봤던 건 늘 깔끔하게 잘린 살밖에 없기 때문일 거다. 생선들을 손질하는데 시간을 많이 소비했는지, 밖으로 나오니 하늘이 까맣다. 아빠와 나는 엄

마를 집어삼킨 바다앞에서 제사를 준비했다. 그저 활어회 한 접시에 간장과 초장, 그리고 술, 이게 제사상의 일부였다. 정신이 없어 준비를 못했다는, 그래서 미안하다는 아빠의 목소리가 허공으로 흩어진다. 아빠가 피운 향은 가늘게 피어오르다 바닷바람에 의해 얼마 가지도 못하고 사라졌다. 아빠는 제사상 앞에 쭈그리고 앉아 멍하니 흩어지는 향 연기만을 바라보았다. 내 입에서 나온 하얀 입김도 하늘로 올라가다 힘없이 스러진다. 엄마를 앓아가 버린 바다가 미웠지만, 엄마의 제사상을 채운 것도 바다였다.

고개를 숙인 아빠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며 바다의 짠 내를 가득 맡고 있자니 아빠의 눈에서 흐르는 게 눈물인지 바닷물인지 알 수가 없어졌다. 나도 아빠를 따라 고개를 숙였다. 해녀일을 한다며 나가버린 엄마. 금방 돌아오겠다며 웃던 엄마. 한여름의 바다에 잠겨버린 우리 엄마.

바닷바람에 차가워진 손을 바다 속에 집어넣었다. 엄마의 따스한 손은 온데 간 데 없이, 하얗고 시린 포말만이 손가락 틈을 빠져나간다. 문득 찡나는 느낌이 들어 몸을 살짝 움츠렸다. 여름이 성큼 다가온 7월이건만, 나와 아빠를 둘러싼 모든 건 시리도록 검푸르렀다. 손을 담그고 있는 짙고 푸른 바닷물도 끝없이 펼쳐진 검푸른 하늘도, 계속 흐르는 아빠의 눈물도, 전부 까맣고 푸르다. 7월의 여름밤, 나와 아빠는 영영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밤을 마주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바다는 한 번 집어삼켰던 건 다시는 돌려줄 생각이 없다는 듯이 사납게 넘실대고 있었다. 매서운 칼바람에 눈가가 시큰거렸다. 밤이 너무도 길다.



학원 유랑민

서울용동초등학교 6학년 3반 | 이찬희

나는 초등학생이다

예비중학생이라고도 불린다

아직 초등학생인데

중학교 과정을 공부하란다

고등학교 수학을 공부하는 친구는 나를 한심하게 쳐다본다

나는 아직 뛰어놀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뜨개질도 하고 싶은데

학교가 끝나면

이 학원에서 저 학원으로

마치 메뚜기 같아

마치 유랑민 같아

학원이 끝나면

이 숙제에서 저 숙제로

마치 유랑민 같아

마치 메뚜기 같아

뜨개질 하고 싶은데

빌려온 책 읽고 싶은데

게임도 하고 싶은데

나를 한심하게 쳐다보던 친구얼굴

중학교 과정의 문제집들이

예비중학생인 나를 붙잡는다

나는 아직 초등학생인데

나는 아직 초등학생인데



여름밤

서울특별시 중랑구 | 한남희

넓은 문은 벽에 바짝 붙은 채 묶여 있었다. 그 사이로 들여다 보이는 손바닥만한 방과 발디딜틈도 없어 보이는 부엌이 그 집의 전부였다. 짝어낸 듯 똑같은 집 여남은 채가 넓은 마당을 에워싸고 있었다. 부부와 아이 둘이 누우면 가득차는 방과 아궁이 하나가 덜렁 놓인 부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 마당을 공유하고 있던 가구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마당에 기대어 살았다. 엄마들은 밥을 하고 빨래를 빨았고 남편과 시댁을 흥봤다. 돌아가며 아주머니들 중 한 명은 얼굴에 멍이 있었고, 부부싸움에 집어 던진 양은 냄비쯤은 장식품이던 시절이었다.

수도꼭지 하나에 의지해 그 많은 사람들이 밥을 해먹고 빨래를 해입고 몸뚱이를 씻던 시절이란.

마당은 거의 언제나 복새통이었지만, 그 해 여름 만큼은 예외였다. 아직 오뉴월 염천이라는 말을 알지 못 했던 어린 나였지만, 그 해는 심지어 윤유월이 들어 오뉴월 염천이 두 달이 아니고 석달이 되었던 때였다. 그런 보너스라면 누구라도 사양하겠지만, 자연의 섭리 아래 한낱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견디는 것 밖에 없었다. 시멘트를 이겨 바른 마당에 한여름 피약별이 내리쬐면 주야장천 사시사철 옹기종기 모여 앉았던 엄마들

도 각자의 집으로 피신할 수 밖에 없었다.

날이면 날마다 빨래를 빨고 빨래 방망이를 내리치던 주인집 할머니가 그 해 여름 큰 맘 먹고 산 선풍기를 아껴가며 돌리고 있었다.

주인집 마루를 점령한 선풍기와 플라스틱 아이스박스가 폭염용 신식 물건이었다. 아직 냉장고라는 물건이 세상에 있다는 걸 모르던 시절이었다.

선풍기 아래 잠시 낮잠에 빠진 주인 할머니 눈을 피해 다섯 살 동생이 일을 저질렀다. 등이 익어가는 더위를 견디며 할머니가 저녁에 지쳐 먹으려 데쳐 놓은 시래기를 다 먹어 버린 것이다. 동생은 무엇이든 먹을 건 다 입에 넣는 아이였다. 비상용으로 사다놓은 진통제를 사탕인 줄 알고 까먹어 버린 일도 있었다. 그럴 때 마다 엄마는 동생을 때렸다. 파리채나 효자손이나 손에 잡히는 것으로 마구 때렸다. 주인 할머니가 말렸지만, 이번엔 수돗가의 물바가지로 동생의 머리를 내리쳤다. 바가지가 박살이 났고 동생은 목젓이 보이도록 울었다. 이웃 아주머니들은 그런 동생을 어이없어 했지만, 간고등어를 생으로 뜯어 먹었다는 말엔 다들 혀를 찼다. 먹거리는 동생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옮겨졌다.

엄마는 밤을 기다렸다. 문 앞에 내놓은 연탄 화덕의 열기에 땀을 철철 흘리면서도 이르게 저녁밥을 지었다.

수돗가 저 쪽에선 땀에 전 채로 씻지 않으려 도망다니는 아들 녀석을 빗자루로 때려가며 수돗물을 퍼붓는 이웃집 아주머니가 몹시 바빠 보였다.

등짝을 맞으면서도 도망가려는 아들과 숫제 난투극을 벌이고 있었다. 마당에 구수한 밥 냄새가 돌아다니고, 차츰 마당이 조용해져 가면 달그락 수저 소리가 들린다. 대부분은 엄마들의 다양한 욕에 묻히곤 했지만 말이다.

어차피 아버지는 술에 절어 한밤중에나 돌아올 것이다. 단출한 저녁 식사가 끝나면 엄마는 애써 우리를 재우려 한다. 흠쳐먹기 외엔 탈이없는 동생은 엄마가 시키는 대로 일찌감치 잠에 빠졌다. 어쩐 일인지 엄마의 일에 관심이 많던 나는 어떻게든 엄마만의 여름밤을 엿보려 애썼다.

조용해진 마당에 나선 엄마가 수돗가 커다란 고무통에 차가운 수돗물을 채우고 거기에 콜라 한 병을 담아둔다. 여름이 시작된 후의 루틴이다. 일정한 시간 동안 수돗가에 앉아 오가는 이웃들과 담소를 나누거나, 하늘을 올라다 보다가 적당한 시간이 되면 콜라를 건져 병 껍 벗겨벌컥 마셨다. 습관적으로 동생과 나를 때리는 엄마였지만, 먹을 걸 탐해서 몰래 먹는 나쁜 엄마는 아니었다. 그 여름 엄마 뱃 속엔 셋째 동생이 자라고 있었다.

반드시 아들을 보고 싶어, 점쟁이의 점괘에 따라 가진 아이였다. 국가에 선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원은 초만원- 이라며 강력한 산아제한정책을 펼치고 있었다. 그 서슬을 뚫고 마침내 아들로 예상되는 아이를 가졌으나, 하필 삼복 무더위라는 암초를 만나 두 배로 힘든 지경이었다. 더위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유일한 낙이던 콜라 한 병을 몰래 먹던 엄마의 그 여름밤이, 어쩌면 생애 가장 기쁜 시간이었을 것이었다.

점쟁이의 점괘가 틀렸다는 청천병력을 아직 알지 못하던 그 밤엔 그래도 기대와 부푼 마음이 있었을 테니까 말이다.



여름밤

경상북도 경산시 | 강영빈

시위대가 돌아간 밤
광장은 허기진 눈빛이 모여드는 방이 된다

나무와 나무 사이가 매미소리로 채워질 때
뉴스는 오늘도 죽은 이들을 방영한다

저마다의 무너진 계단

비가 내린 후에 발자국이 마르지 않아서
습기를 머금은 채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 속에서

여름은 지속된다 광장은 문을 열고
무사히 밤을 보낸 사람들이 걸어다닌다

날씨는 계속 더워지고 있고
제빙기 안쪽에서 생산되는 얼음들

무수한 반복을 겪고도 시침은 반복되고

우린 아직 밤에 있는데 시간이 먼저 지나간다

사람들이 모여 앉은 광장

나무와 나무 사이에 현수막이 걸린다

허기가 영영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의심 속에서

건물은 올라가고

일을 마치고 돌아온 이들이 식탁에 앉을 것이다

창밖으로 비가 내린다

매미 한 마리가 방충망에 붙어 비를 피하고 있다

창문을 열자 방으로 쏟아지는 물줄기

밤의 복도를 지나 만나게 될 사건처럼

여름은 자국을 남기고

눅눅한 책을 펼치면 지난 여름에 죽은 벌레가

느닷없이 나타나곤 했다



길 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김지윤

그날은 더위가 한창인 여름밤이었다. 부모님 심부름으로, 할아버지가 여전히 살고 계신 어린 시절의 고향으로 가던 길이었다. 그곳에서 자라면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는 풀과 먹을 수 없는 풀을 구별할 수 있었다. 자두나 오디, 앵두 같은 과일은 누구네 집 나무를 가리지 않고 따먹었고, 저녁 어스름까지 놀다가 아궁이에 나무 때는 냄새가 동네에 퍼질 때쯤이면 가장 가까운 친구 집에 몰려가 함께 저녁을 먹고 헤어지던 인심이 넘치는 곳이었다. 밤에는 대남방송을 들으며 북에 산다는 늑대가 쳐내려올까 무서워 할머니 품에 파고들던, 그런 곳이었다. 20년이 넘게 지나면서 나는 북에도 머리에 뿔 달린 늑대가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걸 알아버린 어른이 되었지만, 막상 동네의 외형은 크게 변한 것이 없어 보였다.

잘 포장된 길이 끝나고 콘크리트 농로로 한참 들어가다가, 나는 길을 건너고 있는 수많은 청개구리 떼와 마주했다. 나는 놀라서 차를 멈추었다. 도로에는 이미 차에 치여 말라버린 사체부터, 방금 죽어 내장이 드러난 사체들까지, 개구리들이 많이 널려 있었다. 그 사체들 사이로 수많은 청개구리가 한 방향으로 일제히 폴짝폴짝 뛰어가고 있었다. 앞서가던 동료의 죽음을 목격하면서도 멈추지 않는 그들의 몸짓은 비장함마저 느껴졌다. 제

발 빨리 건너라……. 나는 멈춰서 그들을 기다릴 수 있지만, 내 뒤에 오는 차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조급해졌다. 그러나 아무리 응원한들 개구리의 점프력으로 그 길을 빨리 건너기란 쉽지 않을 터. 뒤에 차가 없는 걸 확인하고, 나는 라이트를 끄고 잠시 어둠 속에 몸을 맡기기로 했다. 시골길의 한적함이 감사한 순간이었다.

어릴 적 우리들은 메뚜기나 가재를 잡아 구워 먹기는 했지만, 결코 장난삼아 곤충을 해하는 일은 없었다. 색이 고운 고추잠자리를 잡았다가도 날개가 상하기 전에 놓아주었고, 징그러운 사마귀도 징그럽다는 이유로 밟아 죽이지 않았다. 이유도 없이 내 거대한 타이어에 수많은 생명을 거두며 지나갈 수는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언제 끝날지 모를 개구리들의 고군분투를 바라보다가, 문득 궁금해졌다. 청개구리들은 왜 저 길을 건너야 할까? 길 끝에 가족이 있거나 더 좋은 보금자리가 있을까? 아니면 이루지 못한 꿈이라도 있는 걸까? 길을 건너다가 차에 치여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는 할까? 두려움이라는 것을 느낄 수는 있을까? 웬지 미안한 마음에 나는 눈을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심에서는 볼 수 없는 수많은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별빛 아래에서 들려오는 청개구리들의 울음소리는 마치 자연이 만들어낸 음악처럼 내 귀를 울렸다. 그 순간, 나는 이 작은 청개구리들이 나와 같은 지구의 주민이라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느껴졌다. 그들은 별빛 아래에서 용감하게 길을 건너고 있었고, 이 작은 생명체들이 마주한 도전과 내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모두 삶이라는 길을 건너가고 있는 존재들이었다.

삶의 어느 굴곡에서는 누구의 잘못도 아닌 일에 기어이 비난할 대상을 찾아내기도 한다. 그 화살은 때론 나를 향한 자책과 냉소가 되기도 하고, 남을 향한 원망이 되기도 한다. ‘왜 하필 나야’ 하는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많다. 그럴 때면, 그날의 밤하늘과 개구리의 노랫소리를 가만히 떠올려 본다. 어떤 일도 나의 의지나 노력에 상관없이 그냥 일어나기도 한다는 사실은, 때로 억울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위안을 준다. 내가 떠날 시간을 잘못 택한 것도, 점프력이 부족한 것도, 한눈을 판 것도 아니다, 단지 그 순간에 차가 지나갔을 뿐이야, 라고 중얼거려 본다. 삶은 그냥 살아내는 거라고, 때로는 용기있게 뛰어오르고, 때로는 주저하며 머뭇거리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계속 나아가야 한다고. 그러다 보면 내 옆에서 나를 응원해 주고, 내 뒤에서 나를 기다려주는 다정한 벼를 만날 수도 있으리라.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릴지 알 수 없고, 비록 해피엔딩이 아닐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 가보기로 한다. 그 여름의 개구리들처럼.



여름밤

인천광역시 서구 | 김효정

말간 두 눈에
그렇그렇 별들이 매달렸다

또각거리는 말소리는
귓가에 머무르고

푸스럭 벌레 소리
사라락 바람 소리
스룩 별 지나가는 소리

모든 소리가 나를 감싸 안고
별들이 사라지면
나는 물들여진다

톡톡 발구르는 소리
쿵쿵 가슴이 뭉클거리는 소리

소리가 어둠처럼
내려앉은 그 밤에
별을 손으로 꼭 쥐고
잠이 들었다

단 한 번 그런 밤이
나는 있었다



반성-동냥젓 때문이었나요?

대구광역시 북구 | 성백광

오늘 새벽, 당신이 문득 꿈에 나타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사실 오늘날 그랬던 게 아닙니다. 요즘 왜 자꾸만 당신이 꿈속에 나타나는 걸까요? 한참 동안 어둡한 창밖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당신과 함께했던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이 얼마나 고마운 시간이었는지 이제 알 것만 같습니다.

늘 함께했던 가족 곁을 영원히 떠나던 날 당신의 모습은 너무나도 평온해 보였습니다. 아래위 틀니까지 모두 채우시고 꼭 다문 입술은 마치 젊은 시절 온 동네를 호령하시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양손을 가지런히 펴신 채 살아생전에 어머니가 마련해 둔 하얀 수의를 반듯하게 입으시고 편안히 누워 계시는 모습은 매일 저녁이면 가족 중에 가장 먼저 잠자리에 드시던 영락없는 바로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아침이 밝아오면 마치 잠에서 벌떡 깨어나시어 늘 하던 아침 산책도 하시고 식사 후에는 당신이 가장 좋아하시던 붓글씨도 당장 쓰실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네요. 이게 당신을 향한 마지막 외침이라는 생각에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나이 들어 왜 당신은 그토록 자식 앞에 당당하지 못하셨나요? 어릴 적, 늘 제가 보아왔던 당신의 모습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나이 드신 후

에도 우리에게는 언제나 기대고 싶은 집 안의 대들보였답니다.

읍내 있는 중학교에 막 입학했을 때 깜빡하고 도시락을 집에 두고 오던 날, 손수 제 도시락을 들고 교실까지 찾아온 당신을 보면서 가슴이 찡하도록 뭉클했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논과 밭에 일하러 갈 때마다 늘 동네에서 제일 먼저 어두한 새벽녘에 나가시고 저녁에는 항상 남들보다 가장 늦게까지 논밭에 남아 일하시던 당신이셨기에 해가 한참 지고 킁킁할 때까지 논에서 일하시는 당신을 바라러 저 멀리서 “아버지, 아버지요!”를 힘껏 외치던 어린 꼬맹이는 당시 으스스한 밤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큰 소리로 노래 부르며 논길을 후다닥 뛰어가곤 했답니다.

온종일 쉬지 않고 고된 일을 마치고도 함께 힘들어하는 어미 소를 위해 당신은 소달구지에 단 한 번도 타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나 마음씨 고왔던 당신이 아무런 말도 없이 영안실에 홀로 누워 있는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어 밖으로 뛰쳐나갔다가도 내일이면 당신을 영원히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또다시 안으로 뛰어 들어가기를 수 없이 반복하며 목이 쉬도록 울었답니다.

당신은 태어나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당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어릴 적부터 동네 어르신들께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때 연세 지긋하신 할머니께서 자기 젖을 당신께 가장 많이 주었다며 자랑하듯 들려주곤 했답니다. 혹시 그 때문이었나요? 동냥젖이 아니었으면 죽었을. 그분들에게 받은 고마운 빚을 갚기 위해 평생을 그렇게나 부지런하게 그리고 몸이 망가지도록 열심히 일만 하셨나요? 지금도 당신을 생각하면 속이 상하고 웬지 모를 죄송함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만답니다.

오래전 요양병원에 외로이 누워 있는 당신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아침 산책길에 계단에서 갑자기 넘어지시면서 부러진 갈비뼈가 당신 폐를 훼손해 회복 불가능하다는 중환자실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차마 당신께 하지 못하고 당신이 막무가내로 우겨 선택한 요양병원에 매번 갈 때마다 저를 바라보시던 눈빛은 ‘가족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얼른 집에 가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을 저는 단번에 알 수가 있었답니다.

임종 바로 전날, 당신 곁을 지키고 있던 이 세상에 하나뿐인 며느리에게 “왜 아버지는 오늘 안 오는 거냐?”라고 했으며 당신께서 먼 하늘나라로 떠나시고 한참 후에 제게 알려 주었습니다. 설마 이게 당신의 마지막 유언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항상 당신이 불사조라 믿었기에 요양병원에서도 스스로 힘으로 벌떡 일어나시어 다시 가족 품으로 돌아오시리라 믿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 순간으로 되돌릴 수만 있다면 당신의 고집을 꺾어서라도 요양병원이 아닌 제발 온기 가득한 집에서 가족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대 독자였던 어린 손자와 바둑을 둘 때마다 실수하는 척 부러 저주시고는 괜히 ‘허허’하고 헛웃음 치시며 마치 당신이 실력에 의해 손주에게 패한 것처럼 연기하시던 모습을 이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너무 슬프답니다.

남들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슬픔이 가신다고 하는데 왜 저는 자꾸만 당신이 보고 싶어지는 걸까요? 혹시 제가 당신께 무엇을 잘못이라도 해서 일까요?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당장 꿈에서라도 제발 나타나시어 저를 혼내 주세요. 아버지! 정말 보고 싶습니다.



유랑의 결말

화산중학교 2학년 1반 | 소현수

민들레 홀씨 하나가
햇님의 재채기에
휘이 날아간다

뽀뽀히 흩어져
어디로 향할지 모르는
바람에 몸을 실어도

그 길 위엔
두려움이 없다

작고 고운 날개 펼치며
휘이 날아가

떨어지는 곳마다
뿌리내리고
줄기 솟아나고
꽃을 피운다

갈 곳 없는 이야기의 끝이 아닌
갈 곳 있는 여정의 시작이다

희망찬 새로운 출발이다



밤하늘에 뜬 자개장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안혜민

어린 시절, 시골 할머니 집 앞마당에는 널찍한 평상이 있었다. 여름밤 평상 위에 누워있으면 뭔가 다른 차원의 세계에 와 있는 것 같은 묘한 기분이 들었다. 눈 앞에 펼쳐진 하늘에 가득한 별은 마치 까만 피아노 위에 실수로 은색 화장품 가루를 쏟은 듯했다. 은하수는 하늘의 중앙을 넓게 자리하며 까만 땅에 하얀 물길을 내고 있었다. 그 주변의 별들은 한두 개씩 또는 뭉텅이로 불규칙하게 퍼져서 반짝거렸다.

나는 유독 평상에 누워있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때마다 할머니는 우리 애기 모기 물린다며 얇은 모시 이불을 덮어주고 태극 문양 부채로 선선한 손바람을 만들어 주셨다. 등 뒤에는 풀벌레 소리가 귀를 찌르고, 발치에는 녹색 크레용으로 그린 달팽이 같은 모기약이 놓였다. 그렇게 평상 위에 대자로 누워 하늘을 보면, 귀따가운 풀벌레 소리도, 맵고 싸한 향냄새도 기분 좋은 자극이 되었다.

할머니는 앞문이 반만 열리는 반달이장에 마른 걸레질을 자주 하셨다. 그러면서 전쟁통에 시집을 때 사 왔는데 어느 놈이 낫쇠 손잡이를 몰래 뜯어갔다며 두고두고 속상해하셨다. 할머니의 여덟 명의 자녀는, 이참에 자개장 하나 사드리자는 등, 엄청 비싸다는 등, 막내 두 명도 돈 내냐는 등 각자 의견을 산발적으로 냈다. 결국 열두자짜리 자개장이 우람한 몸집을

이끌고 문갑에 화장대까지 달고 줄지어 집으로 화려한 행차를 하는 것으로 논쟁의 끝을 맺었다.

어린 나는 막연하게 자개장이 참 신기하게 예쁘다고 생각했다. 장의 표면에는 학의 날개, 공작의 꼬리, 사슴의 몸통, 심지어 풀과 돌에 이르기까지 반들반들한 은색 보석이 납작하게 박혀 있었다. 까만 설탕을 녹여 입힌 것 같은 표면에 은색 반짝이가 가득한 장은 마치 할머니 집 여름 밤하늘 같았다. 할머니의 마른 걸레질은 반닫이장에서 새로운 자개장으로 옮겨갔다. 할머니는 걸레질하다 말고, 마치 나를 쓰다듬듯 조심히 손바닥으로 자개를 쓸곤 했다.

그 후 지붕 위에 수없이 별이 뜨고 지는 동안, 할머니의 여덟 명은 막내까지 모두 결혼을 했고 그사이 나는 어른이 되었고 취업을 했다. 시골집에 혼자 살던 할머니에게는 그즈음 불청객인 지병이 찾아왔다. 말수가 적던 할머니가 목소리가 찌렁찌렁 해지고 자꾸만 이상한 말과 행동을 했다. 큰 병원에 다니기 위해 할머니를 서울 우리 집에 자주 모시고 왔었는데, 올 때마다 오메! 집에 자개장을 누가 돌려간다(남의 물건을 슬쩍 빼돌려 가져간다)며 빨리 집에 가서 농을 지켜야 한다고 하셨다.

몇 해 후,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자녀들은 세간살이와 할머니의 남은 짐을 정리했다. 어른들은 자개장을 처분할까 말까를 고민하며 이삿집센터에서도 이런 거는 무거워서 돈 더 줘야 옮긴다고 한마디씩 하셨다. 할머니의 천만원짜리 신춧단지 자개장은, 십만원을 주고도 옮기고 싶지 않은 애물단지가 돼가고 있었다. 나는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바빠서 할머니의 남은 흔적을 보기만 하고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할머니

집의 여름밤도 밤하늘도 자개장도 기억 속 한구석에 조용히 접어 넣었다.


시골 동네는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고, 전에 없던 현대식 건물이 마을 어귀까지 앞다투어 등장했다. 어디선가 재개발 그린 벨트를 운운하며 우리 부모님에게 집을 팔 생각이 있냐고 전화가 오기도 했다.

그러던 차에 부모님이 텃밭도 가꾸고 관리도 할 겸 시골집에 가시기로 했다. 서울 집 살림 중 상당 부분을 트럭에 싣고, 몇 시간을 달려 시골집에 도착했다. 짐 정리를 하고 저녁을 먹은 후 마당에 있는 평상에 오랜만에 누워보았다. 분명 그때와 같은 계절인데, 같은 평상인데도 예전만큼 별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일찍 와서 많이 누워볼 걸 하고 아쉬워하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런데, 캄캄한 방에 들어가는 순간, 자개가 어둠을 뚫고 번뜩이며 존재감을 과시한다. 벽면 가득 흩어져 반짝이는 것이 예전 모습 그대로이다. 우아하게 목을 세운 공작새의 깃털은 사슴으로 학으로 이어지며 줄지어 은하수를 만들고 있었다.

얼마 전 부모님의 지인이 집 구경하러 오셨다가 아따 이 집, 장 솔찬히 비싼 것 있다며 놀라셨다.

“옛날에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로 시작한 대화가 끝일 줄을 모른다. 요즘은 자개 인테리어라고 해서 일부로 고가구만 수집하는 사람도 있다며 이거 안 팔기를 정말 잘하셨단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옛것이 익숙할 때 그 가치를 모르다가, 옛것과 멀어지니 다시 그때를 그리워하는구나.



나는 가끔 그 시절 할머니의 여름밤이 그리워지면 자개장을 본다. 밤하늘을 보듯 자개장을 보고, 자개장을 보듯 밤하늘을 본다. 그러면 할머니의 모기 쫓던 손바람이, 귀뚜라미 소리가, 매캐한 향냄새가 나를 그때의 여름밤으로 이끌고 간다.



여름밤

삼현여자고등학교 2학년 4반 | 이현서

여름밤

매미들은 찌르찌르 목놓아 울고

파란 대문을 열면 나만의 작은 세계가 펼쳐진다

납고 작은 티브이 너머로 세상을 배웠고

어머니의 빈자리는 아버지의 투박한 두 손과 발이 대신했다

폭폭 찌는 날씨에

아버지로부터 유일하게 물려받은 아토피는 좀처럼 가라앉을 생각이 없었다

덕분에 울긋불긋한 흉터가 별자리처럼 수 놓여있었지

아버지의 어깨에는 아주 가볍고도 아주 무거운 것이 메어져 있다

어떤 날에는 날아갈 듯 가볍다가도

어떤 날에는 그 어떤 것보다 무거운 것

책임감이라는 재앙은 아버지의 두 어깨를 무겁게 만들었다

좁디좁은 단칸방 안은 고작 두 사람이서 숨을 나누는 것이 버거웠고

더 이상 수돗물이 끓길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아버지의 어깨도 조금은 가벼워졌을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늘이 더 맑게 보이는 여름밤

오직 아버지와 나의 세상에만

붉은 별자리 두 개가 떠 있었다



여름밤

충청남도 부여군 | 천보경

나는 북적한 상가 거리를 지나 인적드문 샛길로 빠졌다. 샛길 끝으로 갈수록 사람들이 줄어들었다. 영업을 하지 않는 가게가 수두룩했다. 간간이 서 있는 오래된 슈퍼마켓의 열린 창문으로 뉴스 소리가 새어 나왔다. 내 일은 열대야 같던 무더위가 누그러진다는 기상캐스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남청색 도화지인 밤은 어둡혔다. 저 앞 자전거 가게 안의 빛이 바깥 바닥으로 내려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빛을 향해 걷는 속도를 줄였다. 아빠의 축 처져있는 뒷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때, 가게에서 중년 부부가 자전거를 들고 나왔다. 문을 열자 실내의 빛은 눈부시게 빛났다. 그 빛은 새 자전거의 광택을 만들어냈고 그 뒤로 아빠가 나왔다. 아빠와 부부는 서로 인사한 후, 부부는 자신들이 타고 온 차에 자전거를 싣고 떠났다. 아빠는 차가 떠나는 것을 보다가 사라진 뒤에도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가게 문 앞에서 붙여진 종이에서 빨간 문구를 보았다. 가게 정리 자전거 반값 세일. 곧 아빠가 세월의 절반을 바친, 가게를 운영했던 시간들이 사라진다. 순백의 빛 안으로 아빠의 검은 그림자가 서 있다. 빈 도로에 덩그러니 있는 아빠의 뒷모습이 끝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그림자처럼 점점 소멸되어가는 듯했다. 걷기만 해도 지치는 여름철, 아빠

인생의 열대야는 누그러지지 않았다.

아빠. 내가 부러 경쾌한 목소리로 아빠를 부르자 아빠가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다. 왔냐, 들어가자. 가게에 들어서자 진열대에 있어야 할 자전거들이 많이 비어있었다. 자전거 많이 팔렸다. 아빠가 웃으며 계산대 안쪽에 있는 의자를 꺼내주었다. 나는 그 옆에 세워진 파란 자전거를 보았다. 아빠의 자전거다. 이 가게와 함께 오랜 세월을 보낸 낡은 자전거, 저번에 페달 두 개가 빠져서 버린다고 했는데. 새로운 페달이 달려있었다. 새로 달린 페달에는 윤기가 감돌았다. 자전거 고쳤네? 아빠가 의자에 앉으며 답했다. 응, 고쳤어. 이십 년 타서 많이 낡고 해서 버리려 했는데, 이 자전거만큼은 못 버리겠더라고. 아빠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전등빛 아래 아빠의 앞머리 밑으로 자연스레 그림자가 생겼다. 웃고 있는 아빠의 눈이 어두워 보였다. 나는 나지막하게 물었다. 아빠 괜찮아? 괜찮아. 정든 곳이라 슬플 뿐이지. 이제 돈은 어디서 벌지…. 아빠의 말이 흐려지고 고개를 떨굴 때, 나는 아빠의 눈동자에 눈물이 차오르는 걸 보았다.

아빠는 내가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자전거 가게로 나를 키우셨다. 예전에는 아빠 가게도 주변 가게도 다 잘 되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에만 상점과 사람들이 몰렸다. 그리고 대중교통이 발달해 자전거를 찾는 사람은 점차 뜸해졌고 매장보단 인터넷으로 많이 구매하였다. 생계를 위해 아빠는 마지못해 가게를 팔기로 했다. 아빠와 나에게 세월이 깃든 정든 곳인데, 익숙한 공간에 있어서 그런지 절로 긴장한 몸이 풀려 꼬르륵 소리를 내었다. 아빠가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빠가 우리 아들 좋아하는 순대 사 올게.

나는 가게를 나오며 아까는 보지 못한 흰 페달 두 개를 보았다. 페달은 가게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대리석 난간 위에 누워 있었다. 윤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페달은, 오랜 시간 제힘을 다 쓴 후 지쳐 시원한 곳에서 쉬고 있는 것 같았다.

시원하다. 아빠가 파란 자전거에 엉덩이를 실으며 말했다. 여름밤의 시원한 바람이 불었다. 아빠가 새로운 페달 위로 발을 놓고 힘을 실어 둥글게 내리고 올렸다. 아빠는 새 페달이 어색한지 잠시 균형을 잃어 한쪽으로 기울었다. 아빠는 착지한 발을 들어 올려 페달에 놓고 다시 앞으로 나아갔다. 아빠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길을 지그재그로 가로질렀다. 내 가슴도 덩달아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렸다. 그때, 아빠의 앞으로 가로등이 차례대로 켜졌다. 가로등빛 안으로 아빠는 균형을 잃지 않게 애쓰며 열심히 페달을 밟았다. 빛 속에서 작아지던 그림자도 인생의 균형을 잡으려 페달을 힘차게 돌렸다. 아빠는 지치지 않았다. 아빠는 아빠 인생의 열대야를 여름밤과 함께 내일로 향해 갔다.



여름밤의 별똥별

한들중학교 3학년 2반 | 추민재

가끔 별똥별이 쏟아지는 날이 있다.
그런 날, 나는 잠자리채를 들고
여름밤의 별똥별을 담으려 밖으로 나갔다.

별똥별을 담지 못하고
실망하며 집에 왔을 때
어머니는 내게 말했다.

마음속에 별똥별을 담아왔다고.



유랑 무랑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3학년 5반 | 황지호

바람은 원래 방향이 없다고 생각했다. 나를 향해 세차게 몰아치는 바람도 사실은 한 치 앞도 모른 채 훑날리며 지나갔을 것이다. 그런 바람이 내 머릿속과 사뭇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면 내 머릿속도 엉망이 되곤 한다. 규칙 없이 흩어지는 생각들. 그런 고민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산책을 시작한 지 벌써 한 해가 지났다. 그날도 고민으로 가득 찬 채 집을 나섰고, 멀리 떨어진 테마파크로 향했다. 먼 곳에서 산책하고 싶은, 그런 날이었다.

무심코 하늘을 올려다보니, 분명 맑았던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했다. 장마철을 떠올리며 비를 맞을 각오로 산책로에 들어섰다. 어쩌면 내 고민도 이 비와 함께 씻겨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나를 휘청이게 하는 바람마저 흘려보낼 수 있지 않을까.


테마파크에 있는 산책로는 넓고 광활했다. 그 자유로움에 이끌려 산책하다 보면, 예상했던 모습과 다른 풍경이 자주 나타났다. 놀이터가 보이기도 했고, 때로는 공사 중이라 되돌아가야 하는 상황도 있었다. 그래도 목적지가 명확한 길이었기에, 걸었고, 뛰었으며,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다. 그러면서 보았던 풀잎과 꽃잎들, 그리고 연못에 모여 있는 소금쟁이들이 기억되어 오늘을 채우겠지. 나의 인생도 어쩌면 먼 곳에 출구가 있는 것은 아

날지도 모르겠다. 선택한 길을 걷는 시간이 모여 내 삶을 이룬다. 그 길을 고민하는 시간의 찰나가 하루일 것이다. 몇 번의 선택을 반복하다 보니, 점차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가끔 산책 중에 길 외곽에 자리 잡은 웅덩이를 볼 수 있었다. 그것은 흐르지 않아 정체되어 있었고, 탁했다. 시간이 조금 흘러 떨어지는 물방울을 보았다. 그리고 소나기를 맞으며 관찰했다. 문득 내리는 빗물에도 각자의 방향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빗방울들은 각자의 방향을 가지고 웅덩이에 모였다. 그리고 그것들은 조금씩 모여 웅덩이를 채워 나갔다. 채워지면 흐르고, 흐르면 다시 채워졌다. 그렇게 반복하며 맑아지는 과정을 자연은 산책을 통해 누구에게나 알려주고 있었다. 일련의 과정이 산책이고, 인생이며, 이야기이기도 한다는 것을.

나의 이야기는 고요한 흙탕물에 비가 적셔 어디론가 흐르는 그것. 정체되어 있던 물도 그전까지는 그 순간 찰나에 각자의 방향을 가지고 있었다. 정체되었던 내 생각들도 비를 맞아 흐르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나의 방향도 결국 나를 맑아지게 만드는 과정이었을지 모른다. 물은 흘러야 맑아지고, 정체된 생각은 고여 탁해진다. 지금의 유량은 오히려 나에게 필요한 과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너무 맑은 날에는 웅덩이의 물이 말라 탁함만이 남을 것이다. 그러니 가끔은 비를 맞는 과정도 건강해지기 위한 시간일 것이다.

소나기는 점점 거세어졌고, 한 시간쯤 지나서야 비가 잦아들었다. 비가 그치자 구름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나를 위로했다. 마치 아직 집으로 돌아갈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듯했다. 산책로에는



조금의 해가 떠 있었고, 저물지 않아 풍경을 똑바로 볼 수 있었다. 그래, 산책로의 결말을 봐야지.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

내가 알지 못했을 뿐 바람에도 방향이 있다. 순간의 방향이 모여 구름의 형태를 바꾸는 힘이 있다. 나도 그렇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 모든 고뇌의 시간이 삶을 이룰 것을 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를 스치는 바람은 더 이상 고민이 아니라 유랑인 것 같다. 건강해지기 위한 노력이다.

마침내 산책의 결말에 다가섰다. 그 산책로의 끝에서 노을을 봤다. 그리고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가야지. 그렇게 내가 나에게 줘여준 길을 계속 걸어가야겠다.

2024년 제15회 허암예술제

심사평 및 수상작
<어린이 미술대회>





| 고진오 심사위원(인천미술협회 소속)



‘보물’을 주제로 각자의 개성을 어린아이들이 자기만의 다양하게 표현한 것에 감동받았다.

단시간 내에 마음에 갖고 있던 것을 표현하기 쉽지 않으나, 나름대로 완성한 것이 무척 대견스러웠다. 또한 가족과 함께하는 화목한 모습 자체가 나만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어린이가 참여하여 허암예술제가 더욱더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 홍정희 심사위원(인천미술협회 소속)

15회를 맞이하는 허암예술제 미술대회는 참여 제한 나이(5세~7세)를 감안하여 치중되지 않도록 실시하였다.

‘보물’을 주제로 다양하고 여러 가지 표현으로 틀에 박히지 않은 생각들이 나타나 있어 자기 나름대로 것을 그린 것이 재미있었다.

대상을 수상한 작품은 주제에 맞게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완성도가 높았다.

전체적으로 어린 예술가들의 작품을 평가하기 어려웠으나, 이러한 기회를 통해 미술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어 일상생활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예술문화가 형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집 보물, 이다은

The큰빛유치원 | 이다은





행복한 우리 가족

청라새싹유치원 | 김준서





사랑스러운 우리 가족

청라새싹유치원 | 조유라





보물 찾으러 가는 구름강아지

인천당하초등학교병설유치원 | 김나연





소중한 자연

작전어린이집 | 김도준





나

가현센트럴어린이집 | 임수아





사랑해 우리 가족

청라새싹유치원 | 문유건





바닷속 친구들의 우정

예일유치원 | 이류경





보석 가족

인천청라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이민채






내 친구 공룡 친구들

예일유치원 | 한그루



2024년 제15회 허암예술제 우수작품집

발행일	2024년 11월
발행인	정군섭
기획	서덕현
편집	조혜린, 정다희
발행처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A.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464번길 15 쓰리엠타워 7층
	T. 032-582-4341
	F. 0502-582-4742
	H. www.inscc.kr
표지디자인	아츠비
인쇄·출판	원문사(032-573-4982)

※ 본 책자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출품된 작품의 저작권은 수상자에게 있으며, 작품집은
2차 저작물 활용 동의를 받은 후에 발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